고규홍의 '나무생각'



나무와 더불어 맞이하는 가을

은행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결에 노 란 단풍의 '기미'가 담겼다. 머지않아 도 시는 잎잎이 노란 형광등을 매단 은행나 무들로 찬란하게 밝아질 것이다. 폭염과 폭우로 우울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은행 나무의 노란빛과 더불어 맑고 환해지리

은행나무는 물에서 땅으로 생명이 올 라와 자리 잡던 초기부터 살아온 식물이 다. 무려 3억 년 전부터 빙하기와 같은 멸 종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더불어 살아온 생명체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은행나무 를 바라보며 인생살이의 희로애락을 나 누었으며, 나무 또한 사람 곁에서 험난한 '나무살이'의 위기를 이겨 냈다. 나무는 사람에게, 사람은 나무에게 꼭 필요한 존 재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나무로 강원도 삼척의 늑구리라 는 작은 마을 뒷동산 꼭대기에 아주 특별 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있다. 무려 1500년 정도 살아온 나무다. 은행나 무 가운데에는 물론이고, 나라 안의 여느 나무를 통틀어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다.

그런데 이 나무가 1500년이라는 긴 세 월을 살아왔다는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 다. 무엇보다 나무의 나이를 측량할 수 있는 나이테가 담긴 나무줄기가 오래전 에 부러지고 썩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줄기가 남아 있다 해서 그 긴 세월 의 흔적이 나이테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래된 나무 의 줄기는 안쪽부터 썩어 나이테가 사라 져 버리기 때문이다. 나무의 나이를 짐 작할 근거는, 나무의 생김새와 마을 사 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뿐 이다.

이 오래된 은행나무의 연륜을 짐작할 만한 근거는 생김새에 있다. 새로 솟아오 른 여러 개의 맹아지가 사라진 줄기를 둘 러싸고 높직하게 자랐다. 맹아지란 나무 의 뿌리에서 나무줄기 곁으로 돋아나는 새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나무의 특 징 가운데 하나다. 제가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맹아지 하나가 100~200년은 되 고도 남아 보인다. 매우 크다.

맹아지와 원 줄기는 분명히 하나의 뿌 리에서 나온 생명체다. 줄기는 부러지고

썩어 없어졌지만 땅속의 뿌리는 살아 있 었다. 애면글면 삶을 이어 가던 뿌리는 죽 은 줄기 곁으로 맹아지를 돋워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은행나무를 아쉬워하던 나무 곁의 사람들은 새로 돋아난 맹아지 가 고맙고 소중했을 것이다. 가늘게 솟은 맹아지를 애지중지 보살핀 게 2백 년이 넘었다.

애초의 형태를 잃고 시름하던 은행나 무는 마침내 사람들의 보살핌에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크게 자랐다. 사람과 나 무가 함께 한 세월이 무장히 흐르자 이제 나무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특 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줄기 없이 맹아지만으로 우뚝 선 이 은행나무는 매 우 특별한 모습으로 자라났다. 나무는 이 전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 다. 사람과 나무가 더불어 이뤄 낸 결과 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이며, 진 화의 이치다.

무릇 모든 생명이 그렇다. 고정된 형태 로 평생을 살아가는 생명은 없다. 때로는 찢기고 부러지면서도 생명은 모질게 살 아남는다. 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나무는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과 연합하고 협동 하면서, 달리 말해 더불어 살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더불어 살 아가면서, 상상도 못한 성과를 이뤄 내는 게 생명의 역사고, 진화의 흐름이다. 혼 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

이처럼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훨씬 큰 효력을 갖는다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시너 지(Synergy)라는 말을 처음 썼다. 생명 과 사랑은 예상도 못한 효력을 발휘하는 시너지의 결과를 이룬다. 나무와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

삼억 번 넘게 은행나무는 가을을 환희 의 빛깔로 밝혀 주었다. 은행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더불 어 살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지닌 원초적 본능이다. 열매에서 풍기는 고약 한 냄새가 거리를 뒤덮는다 해도, 결코 그 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게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모든 생명의 운명 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기 고

'어느 장애인의 죽음'을 읽고 -서미정 광주시의원님께



윤 장 현 광주시장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제게 보내신 '어 느 장애인의 죽음'이란 서 의원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굳이 이 글이 아니더라도 평 소 의원님의 광주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저에게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있 도록 하는 각성이자 자극이었습니다.

고백컨대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은 그 어떤 날카로운 무기보다 더 아프게 다가 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시민께 약속했던 저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늘 '행정의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공공성이야말로 행정이 서 있어야 할 위치이고, 가야 할 방향이며, 도달해야 할 목표라 여긴 까닭입니다.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꿈

꾸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고려인,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 사는 세 상. 물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 어려운 곳 부터 손길을 내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서 중증장

애인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이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들, 이들의 곁을 단 한시도 떨 어져 지낼 수 없는 가족들의 버겁고 아픈 삶을 사회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덜어 드 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정부 지침이 없다, 타 시도 사례가 없다, 예산 이 없다는 한계를 내세우는 공직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발달장애 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삼보 일배를 하고 제 집무실까지 찾아 오셨습 니다. 이들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곧바로 TF를 꾸려 현장 중심의 지혜를 모았고, 대안을 마련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같은 행정 의 진정성이 현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중증장애인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주 변의 도움을 받아 제 집무실을 찾았습니 다. 그리고 손수 빚은 그릇을 저에게 건넸 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제 집무실에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며 종이공 예 작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기림이 엄 마' 정순임 씨는 발달장애인 엄마로서 사 는 자신의 심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 박 써 내려간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 금도 그 편지를 족자로 제작해 제 집무실 에 걸어 놓고 늘 따뜻한 광주 공동체를 다 짐하곤 합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광 주는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가운데 가 장 낮지만 복지 예산은 38%를 차지할 만 큼 높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복지와 삶 의 질 개선을 소홀히 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에서 벗어난 이웃이 없는지 늘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 내 모든 요소들을 걷어내는 데도 소 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의원님 처럼 가슴 따뜻한 이들이 많아 더불어 살 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불가능하지 않 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서미정 의원님.

서 의원님이 제게 보내신 이 편지는 의 정 단상에서의 호된 질책보다 더한 채찍 질로 저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주신 말 씀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민선 6기 들 어 시청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과 협치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 왔습니 다.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피 고 챙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 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와 소수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의 일생의 신념이 자 삶의 목표입니다. 이 길을 향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의 원님도 늘 응원해 주시고, 지혜와 혜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제 자 광주일보에 실린 서 미정 의원의 '어느 장애인의 죽음'을 읽고 윤장현 광주 시장이 보내온 것입니다〉

의료칼럼

해외여행 전, 꼭 준비하세요!



조수경

해외 여행이 보편화로 인해 여행객 수 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방문 지역도 중국과 일본, 동남아 위주에서 세 계 오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여행중 질병이나 사고도 늘고 있으며, 이중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 마주친 이들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게 되며, 10만 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경 우도 생긴다.

그러나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풍토병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대다수의 여행객은 이에 대한 면 역력조차 없다. 따라서 여행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철저히

여행지에서 조심해야 하는 풍토병에 는 벌레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 뎅기 열, 황열 등과 음식물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지설사,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 염 등이 있다. 또 홍역, 인플루엔자, 에이 즈 등과 같이 사람에게서 전염되는 질환

질환에 따라서는 조심하기만 하면 되 는 경우도 있지만 말라리아, 황열, A형간 염, 홍역과 같이 약이나 백신으로 예방 가

말라리아는 여행지의 말라리아 감염 위

예방약은 종류에 따라 여행 1~2주 전 복용을 시작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벗 어난 후에도 1~4주까지 복용을 지속해 야 한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으 로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사전에 충 분한 기간을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 한 복용 시기에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으로 남북 15도 내외 지역으로 여행을 계 획하고 있다면 황열 예방접종은 필수다. 황열 백신은 해외여행 출발 10일 이전에 접종지정센터에서 접종 받아야 하며, 여 행지에 따라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 는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 전에 확인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여행하는 국가에 알려진 풍토병 이 외에 여행 시기에 유행하는 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도 미리 확인해 예방 대책을 세 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지의 최신 질병유행 정보는 미국 CDC (wwwnc.cdc.gov/travel)나 국내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를 통해 얻을 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뎅기열이 지속적으로 높 은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고, 태국에서는 물이나 토양에 서식하는 유비저균에 의한 질병 발생이 우기 이후 증가하고 있다.

치쿤구니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약은 없으므로 여행시 주의가 필요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해외여행을 떠 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행지에 따른 질병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한 예방약이나 예방접종을 받아 안전하 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 예방 약에 따라 2주전부터 복용해야 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해외 여행계획을 잡은 사람

社 說

예산 확보 '호남 홀대' 타령만 할 때 아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 로 넘어가면서 광주·전남 예산을 둘러 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당 은 광주·전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 돼 호남 홀대가 재현되고 있다고 목소 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전국 모 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며 정치 공세 라고 일축하고 있다.

광주·전남 내년 사업비는 광주의 경 우 229건에 1조7803억 원으로 올해보 다 139억 원 늘었다. 전남도는 769건, 5 조5033억 원이 반영돼 892억 원 증가 했다. 그럼에도 SOC 예산은 1조91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 줄어 전 국(20.0%)에 비해 감소 폭이 크다는 점 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장기간 추진되는 SOC는 한 번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영 건수가 중요하다. 광주시 의 경우 올해 29건 신청에 22건(75.9%) 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30건 중 27건 이 포함돼 반영률이 90%였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경 우 착공 지연으로 1350억 원이, 광주순 환도로 제2구간 건설은 민원과 보상 문 제로 250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 이다. 이월된 예산은 어차피 차기 연도 에 집행될 것이기에 총사업비에는 변 동이 없다.

이처럼 알고 보면 기준과 관점에 따 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호 남 홀대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종종 호남 SOC 예산을 영남권 과 비교하는데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 안 예산이 영남권에 치중된 결과 건수 가 많았고 이는 또한 계속 사업으로 이 어졌기 때문에 영남권 예산 총액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총액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고 '호남 홀 대' 타령만 늘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는 점이다. 역대 과거 정부에서 호남 홀대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지만 이제는 이를 어느 정도나마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는 얘기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예 산 문제를 놓고 한두 개 수치만으로 정 치적 쟁점화해서 당리당략에 이용하 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사 등에 서 '친 호남 정책'을 펴고 있는 새 정부 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한 푼 이라도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새 정부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 다.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의 절박한 심정으 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프렌들리 (frendly) 호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5·18사적지 홍남순 가옥 매입 서둘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 고(故) 홍남순 변 호사의 가옥이 최근 5·18사적지로 지 정됐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방으로 빗 물이 새들어오는 등 가옥 전체가 너무 낡아 뜻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사적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먼저 가옥부터 매입해야 하지만 당 장 예산이 없다고 한다.

광주시 동구 궁동에 위치한 홍 변호 사의 가옥은 5·18 항쟁 당시 재야 인사 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했던, 민주 인 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 역사적 장소 이다. 광주시는 애초 지난 2013년 홍남 순 변호사의 가옥을 광주 지역 민주 인 사들의 사랑방 격인 '민주의 집'으로 조 성하려 했지만 건물 면적이 좁은 데다 노후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다.

시는 우선 5·18사적지임을 알리는 지정석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복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야 인사와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홍 변호 사를 기리는 홍남순기념사업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0월께 기념사 업회가 창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념 사업준비위와 광주시는 조속히 홍 변 호사의 가옥 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수 없는 택배기사, 언제나 졸음과 사투

를 벌여야 하는 버스운전기사 등 반복

적인 육체노동이나 서비스를 해야 하

는 그들의 업무는 정상적인 체력과 정

신력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감당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지 못

하기 때문에 사고나 부상은 감수해야

한다. 소득 하위계층에만 노동시간과

無等鼓

지난달 일본 도쿄 국제 수산식품 및 기술 박람회 취재를 마치고 시장조사 를 위해 도쿄도 중심가의 마트와 백화 점을 찾았는데, 계산대 앞에 세 명의 직 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명은 계산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소 포장을 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큰 봉투 에 담아 주었다. 시장조사 후 찾은 커피 숍에서도 네 명의 직원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계산하고 있었다. 직원 은 업무 부담이 적고, 손님은 기다림 없

듯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다. 노동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강도다. 노동시간이 외연적 크기를 나

타낸다면 노동강도는 내포적 크기를

말하는데, 우리의 경우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노동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

하루 1000건의 우편물을 전해 줘야

하는 우체국 직원, 아파도 단 하루를 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웃는 얼 굴이다.

OECD가 지적했

살인적 노동강도

강도가 집중되다 보니 생산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일 또다시 버스 운전기사의 졸 음운전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동 시에 지난 7월 졸음운

전 사고를 낸 기사가 소속된 업체의 대표는 검찰의 영장 반 려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갈 혐의 로 불구속 입건됐다.

운전기사의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게 일을 하게 한 원인제공 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느낌이다. 논어에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 欲 勿施於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신 이 하기 싫거나 못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권하지 않아야 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则日朝

같다.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나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주기독병원 감염내과 과장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을 한 달간 여 행하는 경우, 50% 정도가 여행 중 건강상 의 문제가 발생하고, 8%가 의사를 찾게 된다. 이 가운데 5%는 침대에 누워있어

야 할 정도로 아프고, 0.3%는 입원을 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있다.

능한 것도 있다.

험도와 내성 말라리아 발생 여부에 따라

예방약의 종류와 복용기간이 달라진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적도를 중심

프랑스 남부에서는 모기 매개 질환인

들은 서둘러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 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